

# “주민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김병태 의장

구민 여러분, 지난 4년간 보내주신 많은 성원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4년 7월, 구민의 소중한 부름을 받아 힘차게 출범한 제7대 남구

##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사

의회도 오늘로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남구의회는 구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의회 본래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강화했으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더 크게 듣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등 구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다소 소통이 부족했거나, 불편을 드린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어 내그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4년간, 국내·외 정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기베라(Yogi Berra)는 “끝

날 때까지는 진정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기간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상생과 화합을 이루고, 현안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구민과 함께해 온 남구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과 특히,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9일 남구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7대 의회의 예정된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7대 남구의회 사실상 마무리

##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

남구의회(의장 김병태)는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를 열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지난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어 김광명 의원은 “돌발성 집중호우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전인가?”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의회는 2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소관 안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깊은 질의와 토론을 통해 안전을 면밀히 심사하였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강영)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적 효율적인 수행 및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대연제(동주민센터를 신 통사로 이전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남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8.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남세자보호관의 임명, 남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남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7월 1일부터 제8대 남구의회가 새롭게 구성된다.

지난 제262회 남구의회 임시회에 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심비 보상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행정적 효율적인 수행 및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대연제(동주민센터를 신 통사로 이전됨에 따라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여 사실과 맞게 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남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18.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남세자보호관의 임명, 남세자보호에 관한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남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2018.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남구도서관 분관 개관에 따른 남구도서관 분관 관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현행 여건에 맞게 조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8년 상반기 분포문화체육센터 및 남구 병상장 개관에 따른 사 용료 신설 등 공공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소방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기존 일반주택에도 2017. 2. 5.부터 의무적으로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계층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부산광역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 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한는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사항과 간과 이들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의견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함.

##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실시

남구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 남구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

거로 남구의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



남구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실시한다.

### 5분 자유발언



김광명 의원

(용호2·3·4)

지난 2009년 7월 7일 남구 대연동에는 346.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강중 주의보까지 발령되면서 침수와 붕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연역 지하철 승강장 통로 지붕이 무너지고용호동에는 해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절개지 흩이 무너져 내리면서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1년 7월 27일 새벽부터 시간당 250mm가 넘는 폭우로 용호동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년 만에 찾아온 폭우로 수마가 합류고 간지리는 실로 막대했습니다. 용호동 협진대양아파트 옹골 벽 사이



송상일 의원

(용당, 갈만1·2, 우암)

본 의원은 감만, 우암지역 뉴스테이 사업으로 이주하게 되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취약계층의 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남구 내 빈집활용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뉴스테이 사업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 공적인 지원 목적도 있지만 사업지역내 세입자 중 기초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는 기존 주택이 철거되면 이주 할 장소 마련이 어려운 실정에서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구 지역 중 재개발구역이 아닌 용당동, 갈만2동, 우암동 지역에 작년 말 기준으로 433곳의 폐·공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하여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들은 학교

## 집중호우 대비한 방재시스템 구축을

로 토사물이 흘러내려 붕괴위험으로 주민들이 대피하고, 재래시장 및 주택침수, SK뷰 아파트와 도로 등 20곳의 도로침수피해, 산사태 등으로 차량과 가전제품 등이 도로에 떠다닐 정도로 주민들의 삶과 재산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호동은 우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용호사거리 일대 주택과 시장 등에 설치된 하수관만으로는 불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남구는 국·시·구비 100억 여 원을 투입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앞(3,000㎡), 삼성시장 주변(1,000㎡)과 백세교 주변(2,000㎡), 용호중학교 주변(3,800㎡) 등 총 9,800㎡의 면적에 9,800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용호로의 도로가 침하되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우천 시 각종 부유물 등으로 인해 우수저류시설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안전시설물의 역할 점검과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갈수록 기습폭우 등 이상기온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피해와 복구의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부산시와 좀 더 체계적으로 연계된 재난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본격적인 장마가 오기 전에 하수관거의 정밀 조사를 통해 노후화 된 관거의 개·보수를 실시하고, 우수저류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유물로 인한 빗물의 유입불량과 펌프의 작동 유무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류의 산지 지역에 사방시설의 추가설치 여부의 점검과 산지에서 흐르는 토사, 낙엽, 나무가지 등의 하수관거 유입 및 퇴적물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 있는 하수구 측구에 각종 쓰레기와 토사 등이 침하되어 하수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찾아 정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재개발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간을 마련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대학생 및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시세의 반값 또는 무상으로 3년간 주택을 공급하는 햇살동지사업은 현재 실적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의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시 예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사업을 활성화하여 이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복지정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주민은 단순히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다수의 결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행정기관에서 보조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축인 도시정비 사업 중 재건축사업은 주민과 건설회사가 협의하여 주민이 편하게 입주할 수 있고 우리 구의 14개 재개발 지역 중 몇 군데를 제외한 곳은 역세권에 있어 분양 등에 문제가 없으나, 갈만1구역과 우암1,2구역은 재개발이 되지 않아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대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들은 학교

등 각종 건물을 새로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에서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유관기관에 대하여 관련 예산 일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년간의 남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는 기초의원,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로 인해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현행 정당공천제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보다는 국회의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과 당의 눈치를 봐야하기에 국회의원이 지역행사에 있을 때 주민이 아닌 의전과 수행이 우선 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 보다는 줄 세우기식의 공전이 자행되면서 주민대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단언컨대,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통렬한 반성과 함께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강력 촉구합니다.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남구의회 김병태 의장(뒷줄 맨 왼쪽)은 지난 9일 중구의회에서 열린 부산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였다.

## “의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의회 방청을 신청하면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방청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남구의회사무국 ☎607-6521~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시기: 남구의회 회기중

(정례회, 임시회)

•방청장소: 본회의장

•방청대상: 누구나(어린

이는 보호자 동반 필수)

•방청방법: 방청 당일 신

분증(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방청권을 교부받아 방청

석에서 방청합니다.

